

[종합·국제]

北 미사일 발사 한 달

끝나지 않은 후폭풍

北 고립무원... 혈맹마저 등 돌려

지난달 5일 새벽 하늘을 가른 북한의 미사일이 국제사회의 핵심이슈로 부각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이 미사일 사태는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켰고 장기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핵 6자회담과 더불어 북핵 외교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그리고도 북한은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북관계 냉각=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지원 유보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 선언으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또 막대한 수해를 입은 북한은 대북적십자사의 지원 제안까지 거부했다. 쌀과 비료의 지원 유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사적 문제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그만큼 쌀과 비료의 지원 유보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여서 당장은 부작용이 더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하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혈맹마저 고개 돌리게 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북한의 입장은 전통 혈맹인 중국도 고개를 돌리게 했다는 지적

中, 北 시종일관 '벼랑 끝 전술'에 넘어선 南 쌀·비료지원 유보...9월 상황변화 모색

이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까지 나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호소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철구 '천성표'를 던졌다.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국면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했던 중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북핵 협상국면이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북한이 고비마다 구사한 '벼랑 끝 전술'에 중국마저 피곤함을 느끼게 된 결과

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과 2010년 국제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이 더 이상 '문제아'로 낙인찍힌 북한을 공개적으로 편들 수 없다는 사인을 보인 것으로도 풀이됐다.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 = 미국은 일단 정해진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이라는 북한의 약

조간간 복원할 계획이다. 북한과의 무역거래가 많지 않은 까닭에 북한이 제각각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 관리'하는 한국=우리 정부는 8월 한 달 상황을 잘 관리한 뒤 가을부터 상황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추가적 사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동'을 할 경우 국면 전환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레바논 사태, 그리고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이란 핵사태 등 다른 굵직한 국제현안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 내 여론 향방도 주시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해지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변할 가능성은 있다"며 "9월 중순께 예상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카드로는 미국 특사의 방북이나 북미 양자협상 개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제재 외에도 클린턴 정부 시절 해제했던 경제제재 등도

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추가적인 금융제재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보고서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BDA는 조사서 이르면 북한이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했던 중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금융제재 외에도 클린턴 정부 시절 해제했던 경제제재 등도



레바논 사태가 4주째가 다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2일 일몰 도중 레바논 국경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육군 7000여명 레바논 남부 추가 투입

해결기미 없이 치열한 전투

지난달 12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교전이 4주째 접어들었지만 양측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가 숨가쁘게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 공방 가열=이스라엘 특공부대가 1일 레바논 남부의 고대도시 바알백을 헬리콥터를 이용해 감습, 헤즈볼라 게릴라 5명을 생포하고 10명을 사살했다고 이스라엘 측이 주장했다.

이 특공부대의 공습이 있는 뒤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2일 하루 동안 이란 교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최

소 206발의 로켓포 반격을 퍼부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양측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 적어도 643명, 이스라엘인 5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지역에 7천여명의 육군을 투입, 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지상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공습후과에 의문 = 이스라엘이 전투기나 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공습을 동원하고도 헤즈볼라의 로켓포 공격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공습후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훨씬 뒤떨어진 무기를 가진 헤즈볼라를 제압하지 못하자 '실전 경험'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워 무기를 판매했던 이스라엘이 향후 무기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심각한 환경파괴 동반=헤즈볼라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의 숲과 평야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 1만6천500여에이커(2천만여평)의 숲과 경작지와 나무 100만 그루가 불에 타버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숲이 불에 타면서 이곳에 살던 야생생물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고 약취가 진동하는 연기가 숲을 덮었고 있다.

◇각국 휴전 노력 = 이슬람 국가들의 최대 단체인 이슬람교회의 기구(OIC)는 레바논 사태의 즉각적 휴전과 OIC 회원국이 참가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유지군에 철거할 것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는 나의 소신"

"北 대포동2호 개발 이란과 협력"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야스쿠니(靖國)神社 참배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사진)가 야스쿠니 참배는 자신의 평소 소신을 거듭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3일 자매 내각 메일매거진에 발표한 '전몰자 위령'이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총리 취임 후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백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종전기념일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메시지는 올해도 참배를 하기 위해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메시지에서 "전쟁에서 숨진 분들을 추도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누가 됐더라도 자연스런 것이다"면서 "어떤 형태로 애도의 뜻을 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비난하면서, 중·일 정상회담이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내가 참배하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원폭 추도식과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만 했을 뿐 15일에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은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유덕민 교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이란이 개발 중인 '세방'과 파키스탄의 '가즈나비'는 북한의 대포동 1호와, 이란의 '세방5'는 대포동2호와 각각 동일한 모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포동 2호 개발은 이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란과 함께의 실험발사(93년5월)에도 불구하고 약 50기의 노동 미사일을 실험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 모델의 실험발사에 따른 데이터를 서로 교환·공유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국 개신교 1000여명 아프간서 추방"

카불 인근서 폭발물 장착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조개 발견

'평화축제'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한 한국 개신교 신자 1천여명이 추방될 것이라고 한 아프간 관리가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최근 카불 인근 지역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조개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엄청나게 도발적이며, 아프간 정부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최근 카불 인근 지역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조개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

서 "7월24일 카불 인근 수로비 지역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이 입는 노란 조개 주머니에 수류탄과 사제 폭발물이 장착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현재 폭발물 제거 및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폭발물이 발견된 수로비 지역은 문제가 되고 있는 '2006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8.5~7)가 열리는 곳과 떨어져 있는 점 때문에 미류 한국인을 목표로 한 테러가 시도됐다고 보고는 어렵지만 현지 테러 위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featuring various hiking spo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영문산악회' (Yongmun Mountain Club)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equipment,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동부부동산건설링(주)' (Dongbu Real Estate Construction Co.) listing various real estate pro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하이랜드 컨설팅' (Highland Consulting) offering various consulting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전원공인중개사' (Rural Real Estate Broker) list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